

지방소멸의 원인과 불편한 진실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리는 과다한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살고 있다. 접근 가능한 최근 자료인 KOSIS의 2022년 수치를 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1%이지만 이들 3개 지역 거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인구의 50.52%가 된다. 좁은 땅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어떠한가? 2022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평균치가 0.78명인데 반해 서울이 0.593명이고, 인천이 0.74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경기도만이 0.839명로서 전국평균치보다 조금 높다. 세종시가 1.121명으로 제일 높고, 다음이 전남 0.969명이고, 그다음이 강원도 0.968명, 경북 0.930명 순으로 수도권 3개 지역의 출산율보다도 모두 높다.

이처럼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은 데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높고, 지방의 출산율이 전국평균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중 하나는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요

인이 출산율 하락에 의한 자연적 인구감소보다는 지방에서 교육, 취업, 거주 등의 목적으로 한 도심으로의 사회적 이동이란 걸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출산율이 1.0명 미만이라는 것은 향후 지방에서 인구유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들 지역도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듯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면 뜬금 없는 연목구어(緣木求漁) 같은 이야기일까? 지방소멸을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 상책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서 거주, 육아, 교육, 경력단절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출산노력이 향후 뒷받침된다는 기대하에, 필자는 지방소멸을 늦추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도시엔 KTX 정차를 조정하여 정착여 인구의 원심력이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방 도시에 구심력이 작동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의 미흡으로 생기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예방하려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최소수준의 보육,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생활가성비가 높은 지역이 되게 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중

양정부 주도로 시군구 중심의 나눠주기식 사업집행은 인프라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광역도시를 핵으로 한 연계를 통해 광역도시 내 중복투자를 막으면서 광역권 내 취업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현재 매년 1조원씩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간접세 형태 등으로 서너 배 이상 그 규모를 확충하여 인프라구축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도심으로의 생활인구유입증가와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우리가 참고해 볼 해외사례로는 일본이 2개 지역에 대한 거주지역 실시로 해당 지역의 소비가 확대된 예이고, 프랑스가 농촌 지역에 대한 매력 공간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증가한 예이며, 독일이 복수주소를 실시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인근 대학의 인구가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지역 특성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1년 살기, 복수주소제 등)이 추진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처하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짧게 더 많이 보고싶다... '숏폼' 중독 어떡하나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요즘 1분 안팎의 짧게 편집된 영상 '숏폼'이 인기다.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숏폼을 쉽게 볼 수 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볼만한 콘텐츠를 찾다가 문득 '이럴거면 OTT 유료 결제는 전부 해지해도 되겠다' 싶었다. 벌써 몇달째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접속하지 않고 유튜브 숏폼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시청시간이 1인당 월평균 46시간 29분으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월 사용 시간인 9시간 14분의 다섯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숏폼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숏폼 시청 트렌드가 확산되자, '숏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하루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자식이 걱정이라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숏폼에 오래 노출되면 뇌 발달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숏폼 중독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짧은 시간 강한 자극을 추구하다보니 오히려 시간을 들여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영화나 책을 한 편 볼 시간에 줄거리 소개 영상을 여러 편 보는 게 낫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온전히 작품을 감상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을 봤는지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숏폼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디지털 마약 '숏폼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영상 자극 추구를 지양하고 건전한 미디어 습관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tree6834@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5일 (금 5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48년생 개가 사나울수록 슬은 시름해진다는데. 60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72년생 삶이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선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다. 84년생 진실은 밝혀져 들수록 때가 묻는다.

37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49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61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7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한다. 85년생 세월이 악어뿔 슬픔도 곧 지나간다.

38년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50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62년생 강건일면 옳은 말이라도 사납게 하면 홀로 남아 외로워진다. 74년생 식구가 많으니 돈 문제로 근심도 많다. 86년생 최선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이다.

39년생 해가 순식간에 지나듯 시간이 빠르다. 51년생 친구와 견책으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63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75년생 뒷사람의 조언은 수용하는 게 좋겠다. 87년생 재물이 함몰되는 시기이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

40년생 지치기 쉬운 날. 52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64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이 없다. 76년생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화합을 기본 우선해야. 88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조심.

41년생 한번 레일을 벗어나면 복귀가 힘들다. 53년생 매장을 남에게 맡기다 보니 매출이 들쭉날쭉하다. 65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근심이 더 쌓인다. 77년생 모험을 하는 건 위기를 만드는 것. 89년생 신용은 만인이 걸어야 할 지표.

42년생 입은 무겁게 하고 지갑은 열려라. 5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6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78년생 이직보다는 기본을 다지고 발판을 만드는 게 순서. 90년생 영계였던 실태라가 풀린다.

43년생 이사하는 행복할 날. 55년생 거울은 혼자 못지 않는다. 67년생 서양에서도 운명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79년생 출발은 같아도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목적지 도착시각은 다르다. 91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

44년생 여유를 가지고 영화라도 한 편 감상. 56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먹는 것에 신경 쓰자. 6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다. 80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작은 성파는 눈에 안 들어온다. 92년생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재산증식을 준비하자.

45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 57년생 다 가질 수 없으니 양보하면서 얻자. 69년생 살면서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는 일이며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81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안전. 93년생 가진 돈을 표시하면서 지출.

46년생 인제가 모여도 성과는 낮을 수 있다. 58년생 불확실성이란 말은 현대를 상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70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82년생 세익스 피어의 희비극은 보편적 해당하는 일. 94년생 나만 못한다고 생각지 말 것.

47년생 기차 여행을 떠나보자. 59년생 원망하는 마음을 접으면 내가 편하다. 71년생 능력이 없으면 결국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 세상사. 83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95년생 홍일점(紅一點)도 실력에서 오는 기운이니 실력을 연마.

김상회의四季

우리는 행복한지



지리적 고립 덕분에 고유한 문화를 지켜왔던 아마존의 한 부족이 초고속 인터넷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면서 음란물 중독 등 각종 부작용을 겪는다는 뉴스를 봤다. 덩디더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있는 강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공동 오두막이 거주지다, 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성을 사용하며 고립되어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보존해왔다는 마루보족의 이야기다.

처음엔 문명의 이로움이 부족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족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느라 가족들과도 대화하지 않거나 인터넷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등 상황이 나빠졌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부족 내부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됨이 생겨났다.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하면서 마루보족의 지도자들은 구전으로 전해져 온 부족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아침과 저녁 일부 시간과 일요일엔 온종일로 시간제한을 두었지만 인터넷의 맛을 알아버린 젊은이들에겐 이미 금단의 사과를 맛본 것과 같은 것이라.

마루보족은 공공장소에서 입맞춤하는 것조차 눈살을 찌푸리는 순결한 부족인데 그러한 예절도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달라질까 걱정이란다. 비단 인터넷발달에만 해당하는 걱정은 아닐 것이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지구환경의 파괴와 오염 도덕과 윤리의 무너짐 등 물질적 정신적 폐해가 많아도 과거의 불편함을 다시 감수해 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구의 종말까지도 걱정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명의 이기를 알아버렸는데 폐단이 있다 한들 포기할 용기가 있는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Advertisement for 'Sudoku 365' featuring a grid of numbers and promotional text. The grid is a 9x9 Sudoku puzzle with some numbers filled in. Text includes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문제출제: 손호성', and 'http://www.argo9.com'.

Advertisement for 'metro' magazine. It includes the magazine's name, address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phone number (TEL: 02)721-9800), and a list of staff members like 발행·편집인 이장규 and 편집국장 김승중.